

문화



지역 공연계의 가장 큰 축제인 2009광주국제공연예술제(10월 20일~31일 광주문화회관·유스퀘어문화관)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오늘, 보다...' (The Today of insight)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에는 무용·연극·음악 분야에서 6개국 11개 작품이 공연된다. 최영화 예술감독은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 10월 20일 개막



<브래드 리틀>

광주에 '세계적 명품공연' 몰려온다

뮤지컬 '지킬&하이드'·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무용·연극·음악 분야 6개국 11개작품 공연

▲월드 와이드 베스트
개막작은 이탈리아 국립 아르페발레토의 발레 '로미오 & 줄리엣'이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에 첨단 무대를 갖춘 특별한 공연으로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폐막작은 이탈리아 국립 산카를로 국립극장의 갈라 공연 오페라 '투란도트'로 확정됐다.
현존하는 최고의 남자 뮤지컬 배우로 불리는 브래드 리틀이 출연하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뮤지컬 '지킬 & 하이드'도 공연된다. '지킬 & 하이드'는 이미 한국어판 공연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작품으로 이번 오리지널 버전은 '캣츠'의 제작진이 가세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 카메라타 안티콰의 공연과 강동석, 조영창, 파스칼 드브라운과 하코타로 야자키(일본)가 지휘하는 프림 필하모닉과의 협연도 눈길을 끈다.

▲코리아 브랜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수년간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다져진 내용이 돋보이는 한국의 대표적 공연 브랜드를 소개한다.
공연장작집단 '뫼다'의 음악광대극 '노래하듯이 행진'은 인형, 가면, 노래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으로 세계 유수의 공연축제에 참가했던 작품이다.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휴먼코미디'는 '가족' '추적' 등 세계의 단편으로 구성된 연극으로 기발한 발상과 유쾌한 웃음, 정한 눈물이 함께하는 작품이다.
박명숙댄스씨어터의 현대무용 작품 '에미'는 1996년 초연후 북경 등에서 30여차례 공연됐으며 김충환 무용단의 한국무용 '장희빈'은 요부 장희빈을 새롭게 해석, 제29회 서울무용제 대상을 수상했다.
▲메이드 인 광주
광주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광주 출신으로 극단 미추에서 활동중인 연출가 강대홍(히서 연극상 수상)씨가 지역 배우들과 호흡을 맞

춰 '하심과 매혈기'를 무대에 올린다. 동아연극상 작품상, 평론가 협회 올해의 연극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이다.
'환한가능'이라는 타이틀로는 현대무용의 박종임씨와 발레의 박선희씨가 '서로 다른 영혼의 책'과 '함께 가는 길'을 무대에 올린다.
▲녹색공연예술학교, 버스프로젝트
예술제 기간 중에는 문화회관 리셉션홀에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녹색공연예술학교'를 운영한다. 소리·몸짓·오브제를 이용한 공연예술교육 전 과정을 오픈 스톨로 진행하며 마지막 날에는 발표회를 갖는다.
버스 프로젝트 '마음으로 가는 그린 버스'는 문화회관 광장에 세워진 대형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다. 버스 지붕에는 무대를 설치해 매일 매일 공연을 펼치며 버스 안에서는 각종 강좌, 예술가와의 대화와 문화나서판, 토크쇼 등 관객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티켓가격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며 연극(4만원), 무용(5만원), 음악(5만원) 패키지 티켓제도도 운영한다. 문의 062-654-8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온·오프라인 서점가도 DJ 추모

네티즌·독자들 추모행렬에 기획전 코너
김대중 전대통령 삶·업적 담은 책 인기

온·오프라인 서점가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19일 고인의 삶과 업적을 담은 책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충장서점은 김 전 대통령 관련 책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자 추모 기획전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 독자들은 '배움-김대중 집안집'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 '김대중 집권 비사' 등 고인의 생애를 추억할 수 있는 책을 찾고 있다. 특히 찾는 사람이 없어 그동안 창고에 보관했던 '김대중의 21세

기 시민 경제 이야기'(이하 1997년 출간) '대중 참여 경제론' '내가 사랑한 여성' '이경규에서 스피버 그까지' 등 김 전 대통령이 과거 집필했던 책들도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충장서점 관계자는 "고인의 관련 서적을 찾는 독자들이 이날에만 평소보다 2~3배가량 늘었다"면서 "고인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자서전 등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점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로고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국화 그림을 붙였으며 독자들이 추모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다.

인터넷서점 에스24는 김 전 대통령 관련 책들을 모은 기획전 '책으로 읽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마련했다.
에스24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희호 여사의 자서전 '동행' '배움-김대중 집안집' 등이 서거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 9시 현재까지만 하루도 되지 않아 100권 이상 판매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점에서는 추모 페이지를 만들고 김 전 대통령의 저서에서 "제 앞에는 또 다른 위기와 도전이 놓여 있으며 그것은 저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넘어야 할 산입니다"라는 일부 구절을 발췌해 실는 한편 독자들의 추모 글을 받는 한편 소개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충장서점에서 젊은 독자들이 고인의 생애를 추억할 수 있는 관련 서적을 고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젊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광주공연

20~21일 문화회관 대극장

아시아청소년오케스트라(Asian Youth Orchestra:AYO)가 서울 예술의 전당 공연에 앞서 20~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지난 1987년 창단된 AYO는 한국(19명)을 비롯,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104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글로벌 오케스트라다.
AYO는 매년 여름 아시아 각국에서 1천~2천여 명의 음악가가 참여, 홍콩에서 3주간의 섬머페스티벌과 리허설 캠프를 거쳐 선발된 후 유명 지휘자 및

솔로 연주자들과 3주간의 국제 콘서트 투어를 거치는 등 6주간의 치열한 경쟁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다.
1990년 창립연주회를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등에서 약 275회 연주회를 가졌으며 첼리스트 요요마와 미샤 마이스키, 바이올리니스트 기욤 크레이머, 길사함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AYO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AYO 창설자이자 예술감독인 리처드 폰치우스(사진)가 지휘를 맡는 20일 공연에서는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라벨의 '블레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 연주된다. 또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



인 피아니스트 장 루이스 스토이아만이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G장조'를 선보인다.
21일에는 플로리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한 제임스 저드의 지휘로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차이코프스키의 '프란체스카 라 디미니'를 연주하며 역시 장 루이스 스토이아만이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20번'을 선사한다. 문의 02-581-04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으로 사랑 전합니다

빛소리오페라단, 요양원 등 5곳서 음악회

광주대도 22일 작은음악회

'음악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음악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음악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음악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반대편 신사', '럭키 서울', '사랑으로', '남행열차', '동백 아가씨' 등 다양한 가요와 민요를 선사한다.
22일에는 장흥노인요양원과 천혜경로원에서, 29일에는 상애노인요양원과 휴원노인요양원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연주자는 유영민·이윤순·이지영·박정희·양동훈·김희창·김기보씨 등이며 남광주 색소폰 단원 박창열·박정일·김대성씨가 특별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theaters like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and 제일시네마 with their respective movie listings.